



기조연설 1

"마지막 장벽: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1990년 수상자



마지막 장벽: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전 대통령

2006년 6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를 고향인 광주에서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수상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정상회의의 장소를 만들어 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들의 환대에 대해서도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장님과 전남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두가지 사건의 의미를 살리고 싶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바람을 이해하며 높이 삽니다.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건들이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면서 독재정권에 저항해 일으킨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2000년 평양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기저에 흐르는 평화, 민주주의, 자유 및 인권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크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20세기말, 권위적인 독재 정부가 붕괴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 부는 역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들이 종종 국민들의 시급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시절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정치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탈선되게 하거나, 반민주주의 세력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보편적인 원칙과 국민들의 문화 및 역사적인 전통을 흡수하여 만들어질 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하거나 컨테이너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야말로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임무, 즉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두 초강대국과 각 동맹국들 사이에 있었던 대립, 그리고 냉전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탈냉전은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조건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초강대국들간의 대립이 한반도의 통일에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남북한의 성장 궤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분단 상황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한의 역할은 상당부분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진정한 화해의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환경에서도 국제적인 요소는 한반도에서 여전히 큰 중요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주된 흐름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전히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전세계의 흐름을 독점하고 다른 국가들을 지시할까요? 아니면, 각국의 특성과 입장이 인정되는 모범적인 다극화 세계가 만들어 질까요?

한반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단, 한국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통일의 속도와 형태는 전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역할은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남북한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경제 협상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성 공단 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교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선전전을 중단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해서 남북한 화해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있을 북한 방문도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서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6자 회담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저는 6자 회담이 상관없는 문제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자 회담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는 상호호혜적 양보를 기초로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지역내 다른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반영 되어야 합니다. 6자 회담이 현재 담보 상태에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더욱이 6자 회담은 전반적인 동북 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정상화 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점진적인 화해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의 결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이웃 국가를 이웃으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의 모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